

# 녹두꽃

2023

여름

52

전운소를 혁파할 것  
 국결을 더하지 말 것  
 보부상의 작폐를 금할 것  
 도내 환전은 구 감사가  
 거두어 갔으니 민간에  
 다시 징수하지 말 것  
 대동미를 상납하는 자한테  
 각 포구 장상의  
 미곡문역을 금할 것  
 동쪽전은 매호 봄 가을로  
 양씩 정할 것  
 탐관오리를 모두  
 파면시켜 내쫓을 것  
 위로 임금을 가리고  
 관직을 팔아 국권을 농간하는  
 자들을 모두 축출할 것  
 수령은 자기의 관할지역  
 안에 묘를 쓸 수 없으며  
 논을 거래하지 말 것  
 전세는 전례에 따를 것  
 연호 잡역을 줄여 없앨 것  
 포구의 어염세는 혁파할 것  
 보세 및 공담은 시행하지 말 것  
 각 고을에 수령의 재취와  
 백성의 산지에 녹포하거나  
 투장하지 말 것

도인과 정부 사이에는  
 속함을 탕척하고 서정을  
 협력할 것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사득하여 엄징할 것  
 횡포한 부호배는 엄징할 것  
 불량한 유림과 양반배는  
 징습할 것  
 노비문서는 소거할 것  
 칠반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두상에 평양림은  
 번제 할 것  
 청문과부는 개가를  
 허락할 것  
 무명잡세는 일체 혁파할 것  
 관리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백성 고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벌할 것  
 국가채는 기왕의 것을  
 막론하고 모두 없앨 것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하게  
 할 것





들꽃 김갑련 | 사진 90×90cm, 2023

### 작품설명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사진으로 재해석한 김갑련 작가의 개인 사진전에 출품작 중 '들꽃'이라는 작품이다. 1893년 11월 고부군(전북 정읍시)에서 작성된 사발통문을 들꽃으로 대체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다. 사발통문에 서명한 스무 명의 이름자 대신 들꽃을 배치한 작가의 마음이 따뜻하고 희망차다.

### 김갑련

사진작가,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차장. 개인전으로 「꽃밥」(전북문화관광재단 초대전, 교동미술관, 전북 전주, 2023.), 「건지나無」(티라이프, 전북 전주, 2022.) 등이 있으며, 단체전으로는 「풍경사진 페어링」(디자트가구 백화점 특별전시장, 전주, 2023.), 「인천개항장국제사진영상페스티벌」(인천, 2022.), 「천천히 그리고 표현으로」(전북도립미술관 상설전시실, 전북 전주, 2021.)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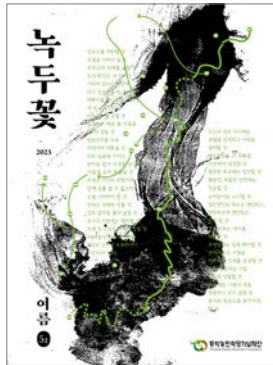
# 녹두꽃

## 차례

2023

여름

52



### 표지설명

새 하늘 새 땅을 열기 위해 일어난 제1차동학농민혁명군의 발자취를 이미지화 하였다. 바탕글은 전주성 점령 후 전라도 전역에서 실시한 폐정개혁안이다. 전봉준의 판결문과 『동학사』, 오지영(간행본)을 참고하였다.



『녹두꽃』을 전자책으로 만나 보세요.

구독신청

☎ 063 530 9416

### 특집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04

### 뉴스초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KBS 전주 TV 심층토론, 제2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제3회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

08

### 기획연재

그림에 담긴 갑오년의 이야기 2

14

### 재단포커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개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통지서 전달식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녹두장군 캠핑장 개장  
[기획전] 동록개의 꿈 - 형평(衡平)을 찾아서

20

### 유족 인터뷰

윤영식 | 참여자 윤치문의 증손자

24

### 인권과 평화

리가아 글로비오 | 황토현에서 발린타왁(Balintawak)의 외침을 듣다

30

### 지역 대담

김두관 | 사단법인 전봉준 이사장

34

### 지역단체 포커스

전국 기념단체 행사

40

### 교육·체험, 방문단체

녹두꽃, 다시 피다

48

### 2023년 교육·체험 프로그램

기념관, 박물관, 기념공원 프로그램

56

###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57

통권 52호 발행일 2023년 7월 1일 발행인 신순철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소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 063 530 9400 팩스 063 538 2893  
이메일 1894@1894.or.kr 홈페이지 www.1894.or.kr 편집디자인·제작 두인



##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1

지난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맞아 '1894 그날을 기억하다'를 주제로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이 성대하게 펼쳐졌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정읍 황토현전적, 사적 제295호)에서 열린 기념식은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이 주관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주영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임상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윤준병 국회의원, 이학수 정읍시장, 임승식 전라북도의회 의원, 고경운 정읍시의회 의장, 주용덕 천도교 종무원장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 및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는 정읍시에서 주최한 제2회 세계 혁명도시 연대회의에 참가한 마르코스 토레스 리마 아르헨티나 알타그라시아 시장, 디어드레 포드 아일랜드 코크 시장, 달시 로너건 아일랜드 더블린 부시장, 마틴 게바라 두아르떼 작가(쿠바 혁명이 체 게바라의 조카) 등이 참석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다.



2



3



4



5

1. 기념사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2. 오프닝 공연 | 선언 퍼포먼스 <그날의 외침>, 극단 성남93
3. 주제영상 |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4. 5. 헌화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제위(祭位)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위패와 무명 동학농민혁명군의 닛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추모관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영전(靈前)에 헌화(獻花)로 시작하였다. 이어진 본 행사는 국민의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의 기념사, 주제 영상 상영, 동학농민군 참여자 편지 낭독, 참여자 유족등록통지서 전달, 축하 영상, 기념공연 순으로 이어졌다. 동학농민군 참여자 한달문·유광화 편지는 후손(참여자 한달문의 증손 한승규, 참여자 유광화의 증손 유상영)이 직접 낭독하였고, 참여자 유족 등록 통지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회 신순철 위원장이 전달하였다.



기념공연 | 창작현대무용단 '더붓'



편지낭독 | 한승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한달문의 증손



편지낭독 | 유상영,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광화의 증손



내빈



유족등록통지서 전달

##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기념사

국민 여러분, 동학농민혁명 유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전병극입니다.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제12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삼가 동학농민군 선열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주영채 회장님, 천도교 주용덕 총무원장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님과 유관 단체 대표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 사업에 뜻을 같이해주신 국회 윤준병 의원님, 전라북도 임상규 행정부지사님, 이학수 정읍시장님, 오늘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29년 전 오늘은, 바로 이곳 황토현에서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맞아 첫 승리를 거둔 날입니다. 이날은 낡은 봉건제도 아래 신음하던 농민들이 부당한 현실에 대항한 최초의 항쟁에서 새로운 변화의 에너지를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한 날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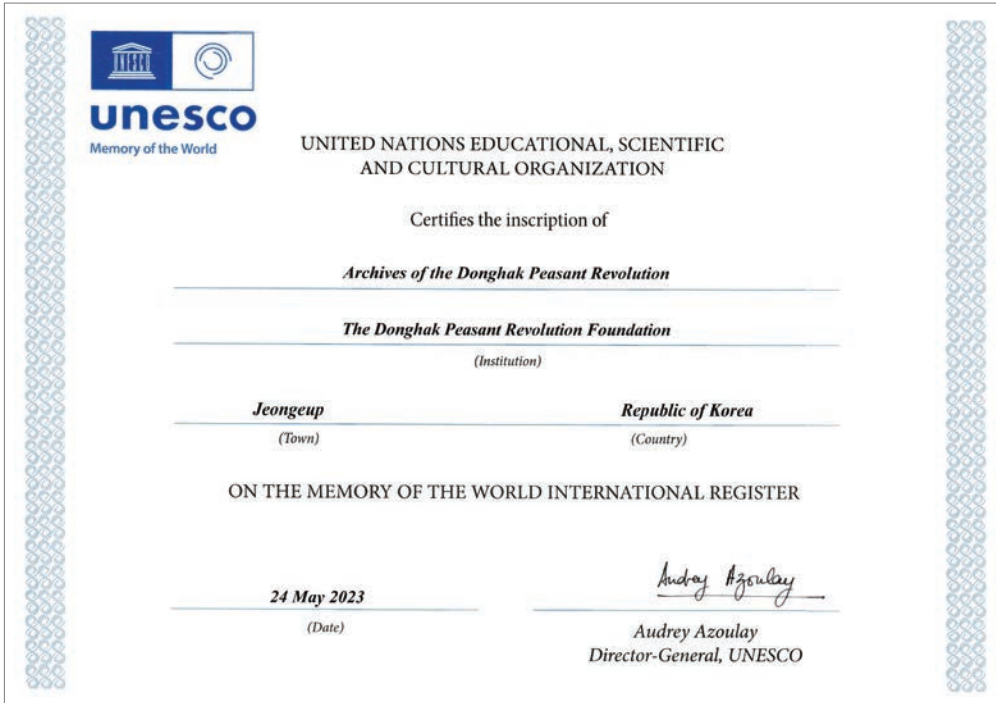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더욱 의미 있게 기리기 위해 유족과 관련 단체, 한국 역사학계는 수많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 바로 오늘 5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이곳 황토현전적지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개원해 갑오 선열의 숭고한 정신이 미래세대로 계승되는 교육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이 모여서 우리는 지금,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결실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동학농민혁명은 전 세계인이 함께 지키고 기억하는 공동의 자산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기리고, 전 세계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기념사업에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 지자체와 합심해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범국민적으로 확산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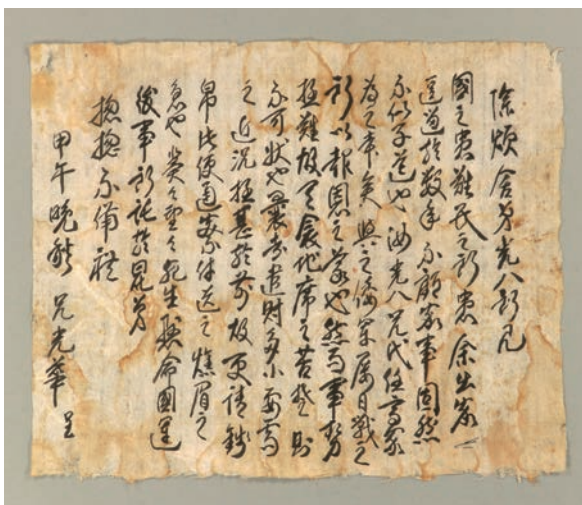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3. 05. 11.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전 병 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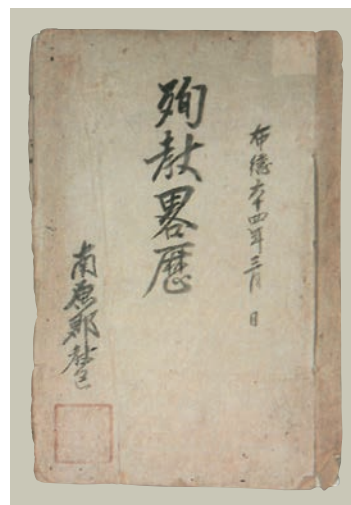
#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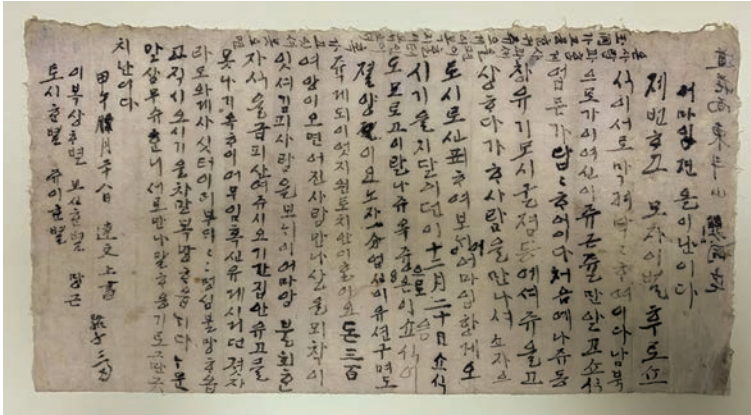


2



3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는 2023년 5월 18일 파리에서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를 열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하였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1894년~1895년 조선에서 발발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 총 185건으로 동학농민군이 기록한 회고록과 일기, 유생 등의 각종 문집, 그리고 조선 관리와 진압군이 생산한 각종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비롯하여 고려대 도서관,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천도교 중앙총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 여러 기관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다. 이번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갖는 의미는 '자유·평등·인권·정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 동학농민혁명이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음은 물론 세계사적으로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근대주의 운동에 영향을 끼친 보존·기억해야 할 가치로 인정받았다는 데 있다.

2015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 지 9년 만인 2023년에야 비로소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역사적·세계사적 가치를 국내에 알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히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는 2024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국제 학술대회와 특별전시 등 가치 확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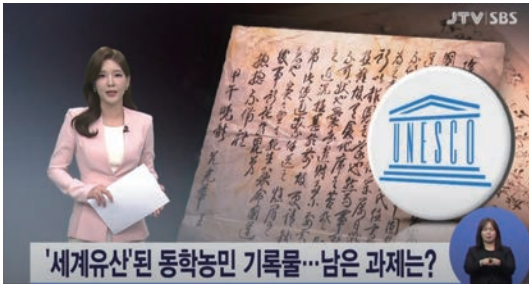
- 1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 2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1894)
- 3 순교약력(1923)
- 4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1894)

## 2023년 한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관리기관 협의회 워크숍

### SBS JTV(전주방송) 뉴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보도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사진출처: JTV>

2023년 5월 19일 SBS JTV(전주방송) 뉴스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등재 확정이 보도되었다.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갖는 의미를 "201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정이 국내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인정한 것이라면, 이번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세계사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의미가 인정받은 쾌거"라며 향후 과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와 참여자에 대한 서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23년 5월 4~5일 부산 아스티 호텔에서 '2023년 한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관리기관 협의회 실무자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2018년 시작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워크숍은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과 부산문화재단이 주관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주관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과 부산문화재단,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등재 확정을 앞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419혁명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비롯하여 간송미술재단, 국가기록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17개 한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기관별 실적보고와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네트워크 연석회의



2023년 5월 17일 5·18기념재단에서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네트워크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번 연석회의에는 주관기관인 5·18기념재단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제주4·3평화재단,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참여하여 기관별 추진사업 소개와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네트워크는 동아시아의 민주평화인권을 위해 투쟁했던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인류평화에 기여하고자 2012년 한국·대만·일본 등 국내외 기관이 MOU를 체결하여 각 기관이 지닌 경험과 관련 자원 및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 2023년 봄 연석회의의 참여기관으로 확정된 동학농민혁명재단은 이 회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인류 보편적 가치 공유 등을 통해 인류평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이번 연석회의에 참가한 7개 기관·단체는 회의 후 광주광역시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민주평화 대행진)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에 참여하였다.

## KBS 전주 TV 심층토론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사진출처: 전주 KBS>

지난 2023년 5월 9일 전주 KBS. TV 시사토크 프로그램 '심층토론'이 '129년 전의 함성,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려면?'이라는 주제로 방영되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상임고문,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가 출연하여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세계사적 가치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동학농민혁명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확정을 앞두고 제작·방영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가치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위한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 제2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근대혁명 도시들의 기억과 연대 : 혁명과 사람



이학수 정읍시장



2023년 5월 9(화)일부터 11(목)일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및 기념교육관 일원에서 제2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가 열렸다. 정읍시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전라북도 후원으로 열린 연대회의는 ‘혁명과 사람’을 주제로 세계 혁명 지도자들의 삶과 희생을 재조명함으로써 그들이 염원한 세상을 어떻게 현재적 가치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세계혁명도시 간 연대·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민국 전라북도 정읍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알타그라시아, 아일랜드 더블린과 코크, 독일 뮐하우젠, 중국 난징 등 5개국 관계자들이 참가한 이번 연대회의는 사흘간 이어졌다. 첫째 날(5월 9일)에는 정읍시와 참가 도시 공식회의와 환영 만찬이 있었고, 둘째 날(5월 10일)에는 황토현전적 현화 및 세계혁명도시 연대선언,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의 국제포럼이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인 셋째 날(5월 11일)에는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및 제56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에 연대회의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5월 10일 열린 연대회의의 본 행사 개회식에는 이학수(정읍시장), 김관영(전북도지사·영상 참여), 국주영은(전북도의회 의장), 신순철(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디어드레 포드(아일랜드 코크 시장), 마르코스 토레스 리마(아르헨티나 알타그라시아 시장), 달시 로너건(아일랜드 더블린 부시장), 고경윤(정읍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어진 포럼에는 홍상표 한국영상대학 교수의 기조강연 「1894년 황토현전투의 재구성 : 역사지리학」을 시작으로 제1부 유지아 원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광재(소설가의 「전봉준 혁명적 생애와 ‘그의 나라’, 수잔 키미그 볼크너(독일 뮐하우젠 박물관장)의 「독일농민전쟁의 뮐하우젠과 토마스 뮌처」가 진행되었다.

제2부에서는 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브랜든 킬링(아일랜드 더블린 시립도서관장)의 「아일랜드 독립투쟁의 지도자 마이클 콜린스」, 마틴 게바라 두아르테(체 게바라 연구자)의 「남미의 농민혁명 알타그라시아와 체 게바라」, 왕지원(헝수이대학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의 「중국 태평천국운동의 난징과 홍수전」이 각각 진행되었다.

제3부에서는 한담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논평이 진행되었는데, 논평에는 데이비드 오브라이언(아일랜드 코크 시립도서관 관장), 정선원(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장, 권의석(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 제3회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 : 혁명의 미술



1



5



2



3



4

- 1\_ 우범기 전주시장
- 2\_ 박홍규 화가
- 3\_ 토마스 뮐러(독일 루터기념재단 이사 겸 디렉터)
- 4\_ 딕비 워드 알담(영국 미술평론가)
- 5\_ 전주 세계혁명예술

2023년 6월 2(금)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에서 제3회 전주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이 전주시 주최,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다.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을 맞아 ‘혁명의 미술’을 주제로 올해 3번째로 열린 국제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과 아시아를 비롯하여 독일, 멕시코, 유럽 등에서 일어난 혁명이 미술작품을 통해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행사는 개회사(우범기 전주시장), 환영사(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축사(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기조강연, 발표, 논평 순으로 진행되었다. 국제포럼은 박홍규 화가의 「그림으로 보는 동학농민혁명」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제1부 토마스 뮐러(독일 루터기념재단 이사 겸 디렉터)의 「독일농민전쟁의 기억과 미술」, 안소니 쉘튼(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대 교수)의 「멕시코의 미술, 밀레니얼리즘과 혁명」, 제2부 딕비 워드 알담(영국 미술평론가)의 「유럽의 68혁명과 미술운동」, 홍성담(화가)의 「한국의 미술운동 아시아 민주주의 투쟁의 국제적 연대」 순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에 대한 논평은 원도연(원광대 교수)을 좌장으로 김기현(화가·미술평론가), 이나바 마이(일본, 광운대 교수·미술평론가), 박홍규(화가) 등이 참여하였다.

한편, 국제포럼 부대행사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2023년 오늘의 한국’이라는 주제로 2023 전주 세계혁명예술 기념전이 열렸다.

# 그림에 담긴 갑오년 이야기 2

2023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통권 51호부터 54호까지 네 번에 걸쳐 [기획연재. 그림에 담긴 갑오년 이야기] 코너를 신설하여 박홍규 화가의 작품을 연재한다.

**새 하늘 새 땅!  
동학농민군의 길, 새 세상으로가는 길  
'양반의 피와 백정의 피가 서로 다르다'는 허상을 찢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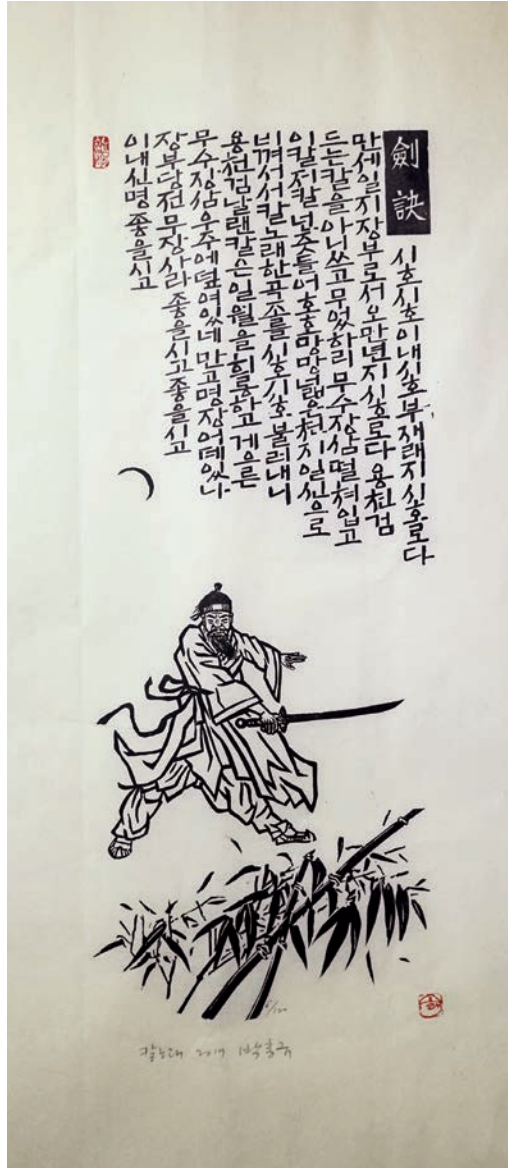


새 세상으로 가는 길, 2019, 73x141cm 목판화

## 박홍규

화가, 1959년 전북 부안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였으며, 전북민족미술인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인전 「들에서 여의도까지」(1999, 우진문화공간, 전주), 「겨울 여의도」(2011, 서신갤러리, 전주), 「新농가월령도」(2012, 서신갤러리, 전주)를 가졌으며, 2인전(박홍규·이기홍)으로 「지금, 여기, 리얼리즘」(2012, 차라리언더바, 전북 전주)이 있다. 초대전으로는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대전.만화부문」(2010,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전주), 「빈집의 꿈 국회초대전」(2013, 국회의원회관), 「피노리 가는 길\_동학농민혁명 120주년 판화전」(2014, 서신갤러리, 전주),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 기념전」(2015, 전남 장흥군), 「혁명은 순정이다」(2021, 오월미술관, 광주광역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2021~22, 신동엽문학관, 충남 부여) 등이 있다. 이밖에도 「힘전」, 「동북아와 제3세계미술전」, 「쌀전」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검결, 2017, 38×95cm 목판화

새 하늘 새 땅  
 ...  
 ...  
 1894년 갑오년,  
 동학농민군은 노래하였다  
 ...  
 ...  
 때가 왔네 때가 왔어  
 다시 오지 못할 좋은 때가 왔네  
 ...  
 ...  
 용천검 드는 칼  
 년젯 들어 낡은 세상을 베었다  
 ...  
 ...  
 용천검  
 날랜 칼을 높이 들었다



내 청춘의 비망록, 2021, 60×110cm 목판화

갑오년 5월

바람 부는 보리밭 따라

고부에서 백산으로, 백산에서 무장으로

다시 무장에서 고부로 백산으로 동학농민군 사기가 총천하였다.

푸른 보리밭 따라

5월의 바람 출렁이는 고부 들판, 징개맹개 너른 들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동학농민군이 일으킨 새 세상을 여는 바람

5월 11일, 불현듯 푸른 바람이 멈추고

황토현 황토현 황토현에 휘몰아친 붉은 바람

동학농민군이 일으킨 붉은 바람에 전라감영군이 쓰러졌다.





황룡강전투, 장태를 몰다, 2014, 21×30cm 종이에 채색

파죽지세(破竹之勢)

황토현(전북 정읍시)에서 전라감영군을 크게 물리친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으로 향하지 않고 진로를 남쪽으로 회군(回軍)하였다.

동학농민군 대오를 확장하면서 서울에서 파견된 경군(京軍)을 유인하기 위함이었다.

마침내 5월 27일 황룡강(전남 장성군)에서 경군(京軍)과 맞닥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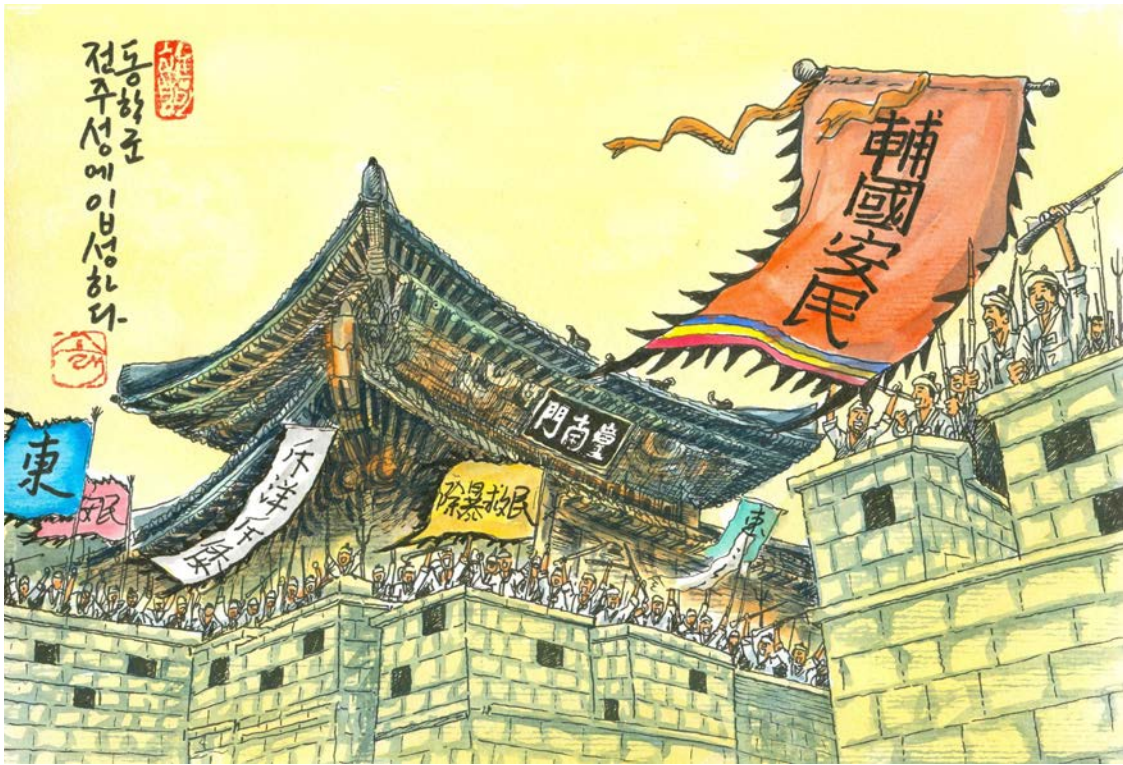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경군 대관 이학승을 전사시키고, 많은 군기를 빼앗았다.

동학농민군은 닭을 키우던 장태를 개량하여 적의 총탄을 피하는 무기로 활용하였다.

장태를 굴리며 장태를 굴리며...

동학농민군이 굴린 장태는 어둠의 역사를 걷어내고

새 하늘 새 땅을 여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였다.



전주성 입성, 21×30cm 종이에 채색

1894년 5월 31일  
동학농민군 전주성을 점령하다

성루에 펄럭이는  
척양척왜 보국안민 제폭구민 깃발이어

풍패지향(豐沛之鄉) 태조 이성계의 분향  
조선정부 운영조세의 절반가량을 담당했던 전라감영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은 조선정부에게 큰 타격이었다.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한 후  
뒤따라온 양호초토사 홍계훈 부대와 전주성을 사이에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한편 조선정부는 전라감영의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였고,  
일본도 군대를 조선으로 진출시켜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 정치정세가 크게 격동하였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2021, 100×200cm 목판화

흥미한 국내의 정치정세 속에서  
 조선정부와 동학농민군은 이른바 '전주화약'을 맺었다.  
 이로써 전라도 전역에 집강소가 설치되고 관민상화(官民相和)를 통해 폐정개혁이 단행되었다.



후천개벽도, 2014, 45×92cm 목판화

후천개벽(後天開闢)!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1894년 갑오년 여름 동학농민군은 하늘을 보았다.

집강소 설치, 폐정개혁 단행!  
 수천 년 동안 통치의 대상이었던 농민이 통치권력을 행사한 쾌거였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개최



지난 4월 13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신순철(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심의위원 구선희(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김춘성(전 도교 교서편찬위원)·배항섭(성균관대 교수)·주영채(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정항미(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代) 이선혁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사무관) 등이 참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등록을 신청한 21건을 심의하여 참여자 2명, 유족 158명을 인정하였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통지서 전달식



지난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통지서 전달식이 열렸다. 2023년 상반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등록된 유족을 축하하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이날 전달식은 국민의례, 경과보고에 이어 신순철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 주영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의 축사, 유족등록통지서 전달(김홍창 외 9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2004년 9월 설치되었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때부터 지금까지(2023. 5. 11.) 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모두 3,745명이고, 참여자 유족은 12,962명이다.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녹두장군 캠핑장’ 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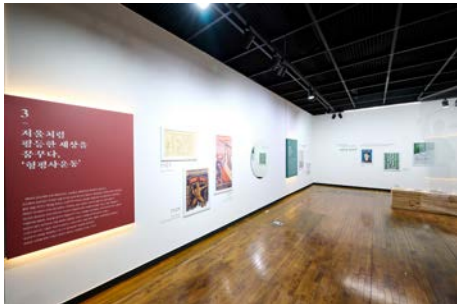


2023년 4월 5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일원에 방문객들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배울 수 있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녹두장군 캠핑장’이 개장하였다. 약 30만㎡ 부지에 조성된 기념공원 안에 자리한 녹두장군 캠핑장은 오토 캠핑, 오토 카라반(자가 카라반), 일반 캠핑 등 총 51면이 갖춰져 있으며 동시에 200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부대시설로 샤워장, 취사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예약은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 동록개의 꿈 - 형평(衡平)을 찾아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023 기획전(企劃展)

2023년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023 기획전이 개막하였다. '동록개의 꿈 - 형평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네 파트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파트별 주제를 살펴보면 ① 칠천반(七賤班),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하다는 '백장' ② 동네 개, 백정 '동록개'가 바라던 세상 ③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꿈꾸다 '형평사 운동' ④ 사람이 하늘이라, 인권운동의 시작 등이다. 이번 기획전은 21세기 초입(初入), 풍요로운 현대사회 이면에 움크리고 있는 계급계층 간 차별과 그에 따른 상호 간 혐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동안 세계는 기존의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그것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세력 간 팽팽하게 대립하였다. 조선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1894년 갑오년, 사회변혁의 필요성을 자각한 조선의 농민들은 동학(東學)을 자양분으로 자주와 평등을 염원하며 봉기하였다. 이것이 곧 동학농민혁명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농민뿐 아니라 광대와 기녀·노비·백정은 물론이고 몰락한 양반까지 합세하여 스스로 역사가 된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 혁명이다. 낡은 신분제를 극복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추구한 동학농민군의 강렬한 열망은 이후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으로 변화한다. 그 사례로 1920년대 백정들이 조직한 형평사 운동이나 여성과 어린이 인권신장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2023년 오늘의 우리 사회는 120여 년 전 혐오와 멸시로 가득했던 계급계층 간 차별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금수저’, ‘흙수저’ 같은 신조어 등을 통해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극심한 부의 양극화로 인해 계급계층 간 차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상황을 반영하여 <동록개의 꿈, 형평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023년 기획전’을 마련하였다.

이번 전시는 갑오년에 대한 기록 중에서 ‘김제 원평에 살던 한 동록개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평생 모은 돈을 동학농민군에 내놓았다’는 기록에서 시작하였다. ‘동록개’는 19세기 조선에서 가장 천한, 호모사피엔스의 자격까지 박탈당한 채 이름도 없이 그저 ‘동네 개’로 불리던 백정이다. 원평의 백정이던 동록개가 피땀 흘려 모아 마련한 집, 자신의 전 재산을 동학농민군에 헌납한 그 마음은 곧 새로운 세상을 추구한 동학농민군의 열망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전시를 관람하게 될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풍요로운 현대사회 이면에 웅크리고 있는 계급계층 간 차별과 혐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윤치문의 증손자 윤영식

일시 2023. 4. 19(수) 13:00  
장소 경상북도 예천문화회관 뜰



윤치문(尹致文 1863~1894) / 파평 윤씨.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고산에서 활약한 동학농민군 지도자. 1887년 총무위 부사용으로 임명되는 교지를 받고, 1888년 무과에 급제한 뒤에는 벼슬에 올라 1892년 6월 사헌부 감찰에 임명된다.

향리에 내려와 있던 그가 동학에 들어간 배경은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농민군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군사 활동에 앞장선다. 예천 일대 동학농민군이 합세하여 (예천)읍내를 공격하던 1894년 8월 28일(음) 굴머리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윤영식(尹永植, 1940~ ) / 윤치문의 증손. 예천에서 태어나 줄곧 고향을 지키며 살아왔다. 현재 윗대부터 물려 내려온 고산의 집과 땅을 지키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동학농민군 후손 증언록), 역사비평사, 1997. 211쪽.



**문** 선생님, 반갑습니다. 녹두꽃 독자님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녹두꽃』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윤치문 님의 증손자(曾孫子) 윤영식입니다. 그리고 전북 정읍에서 이렇게 먼 경상북도 예천까지 저를 찾아와 주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감사드립니다.

**문** 지난해 7월이었지요? 예천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던 '2022년 예천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때 뵙고 오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전에 말씀 올렸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뵙게 된 것은 저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여름호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이신 선생님의 증조부님이신 윤치문 님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답** 고맙습니다. 전라도에서 이곳까지 먼 길인데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문** 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이곳 예천에서 태어나셨지요?

**답** 그럼요. 경북 예천군 유천면 고산동이 제 고향입니다. 고산동 106번지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줄곧 여기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지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유천면 고산동은 우리 집안이 대대로 살아온 터전입니다. 이

곳에서 저의 7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사셨다고 하니 까 대략 200년이 넘었다고 봐야겠지요. 더 올라가 보면 말입니다. 본래 과평 윤가가 영주 풍기에서 살다가 4백여 년 전에 대운 소운 그렇게 되면서 그때 시조 할아버지께서 예천으로 넘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문** 집안 대대로 살아온 터전이네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던 증조부께서도 지금 이곳 고산동에서 태어나셨겠네요?

**답** 네, 그럼요. 증조부께서도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생활하셨지요.

**문** 지난 1997년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펴낸 동학농민군 후손 증언록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1997. 역사비평사)이라는 책에 선생님의 증조부님에 대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던 신영우 교수님께서 증조부님에 대한 내력을 정리하셨던데 그때 상황이 기억나시는지요?

**답** 네, 그럼요. 생각나지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님과 신영우 교수님이 같이 예천에 오셨어요. 한두 번 온 게 아니예요. 이이화 선생님과 신영우 교수님은 동학농민혁명 관련한 자료를 찾고, 그것을 연구하시느라 아주 자주 이곳 예천에 오셨어요. 특히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던 1994년을 전후해서는 더 자주 오셨어요. 그때는 저나 이이화 선생님이 50대였을 때니까 젊었던 때였지요.



**문** 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무렵 선생님께서 이이화 선생님과 신영우 교수님 등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출판된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 책을 읽다 보니 선생님께서 이곳 예천에서 태어나 공직생활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던데, 어느 기관 혹은 어떤 일을 하셨지요?

**답** 그게 조금 얘기가 달라요. 제가 공직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군대를 이곳 예천에서 근무했어요. 그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제가 군인 때 보안부대로 배정을 받아서 고향인 이곳 예천에 와서 근무했거든요.

**문** 네, 군대 가기 전에도 그랬고, 군에서 제대한 후에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줄곧 이곳에서 생활하신 거네요?

**답** 그렇지요. 고향에서 줄곧 농사를 지었지요. 그러다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던 1994년 전국에서 기념사업이 펼쳐지고, 역사학계 관계자들이 저를 찾아와 증조부님에 대해 이런저런 내용들을 묻고 하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저도 관심을 가

지게 되었지요. 그 무렵 우리 예천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던 전기항 참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후손이 지금 사단법인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장홍 선생님이세요. 1996년 3월 1일, 지금도 기억이 또렷한데 그날이 3·1절이었어요. 그분이 그날 예천성당에서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님 역사 특강과 함께 예천지역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을 알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창립하였지요. 그때 문부장님도 이이화 선생님 일행과 함께 행사에 참석해서 저와도 인사를 나누었었지요. 그게 벌써 30년 가까이 되네요.

**문**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당시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한승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때였는데, 이이화 선생님이 저희 사업회 이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천기념사업회 창립식 겸해서 열린 이이화 선생님의 역사 특강이 있었어요. '경상북도 예천지역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강연이었는데, 이 강연을 위해 이이화 선생님과 그 전날 예천에 와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 행사장인 예천성당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답** 네,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전장홍 선생님이 동분서주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문부장님은 지난 30여 년간 전국에서 펼쳐지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한 행사들에 두루 다녀와서 아시겠지만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각 도별로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저도 전국 유족회 행사나 기념사업단체 행사들에 참석하면서 느낀 것인데, 전라도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가 펼쳐지면 그곳에 지자체장은 물론이고 각

급 기관장 등이 대거 참석하여 분위기가 매우 고양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도 지역이나 충청도 지역에서 펼쳐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는 어딘지 모르게 다소 분위기가 뜨겁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9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가 사는 경상도 지역에서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높아졌지만 30년 전만 해도 경상도 지역의 분위기는 참 침체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전라도 지역에 비하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낮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문** 네, 선생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후 일제강점기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극심한 부침을 겪으면서 한 세기가 넘도록 그 역사적 의미가 왜곡되고 축소되어온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천에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단체를 창립한 일 등에 대한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쯤 해서 오늘 인터뷰 본래의 목적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윤치문 님에 대해 얘기했으면 합니다. 선생님의 증조부님이신데 증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은 언제 알게 되었는지요?

**답** 증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얘기는 조부께 들었습니다. 언제인지는 그 시기가 명확하게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제 조부님이 살아계실 적에 저에게 너의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대장이셨다고 얘기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증조부님이 무과에 급제하셔서 무관 벼슬을 하셨고, 아주 힘이 장사였다고 말씀하셨어요.

**문**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의 많은 경우가 농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1894년 여흥 일본군이 경북공을 무단점령하고, 친일내각을 수립하여 청일전쟁 도발 등의 폭거를 자행하여 국권을 유린하자 전국에서 유생을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동학농민혁명 대열에 합류하지만 증조부님의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여겨집니다. 동학농민혁명 이전에 조선 정부에서 관직에도 있으셨지요?

**답** 네, 동학농민혁명 이전이던 1887년 충무위 부사용으로 임명되었다는 교지가 있고, 1888년에는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오른 후 1892년 6월 사헌부 감찰에 임명되었다고 선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문서가 집안 대대로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증조부께서 1887년 [선략장군 충무위 부사용(宣略將軍 忠武衛 副司勇)]으로 임명되면서 받은 교지, 무과에 급제하여 받은 교지 [한량 윤치문 무과 병과 제팔백육십일인 급제 출신자(閑良 尹致文 武科 丙科 第八百六十一人 及第出身者)] 그리고 통훈대부(通訓大夫)로 사헌부 감찰에 임명되면서 받은 교지 등을 지금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 선생님 증조부께서 1887년 관직을 받았고, 1888년 무과 급제 후 1892년 6월 사헌부 감찰로 임명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본격화된 것이 1894년인데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때가 언제쯤인지요? 그리고 그 연유에 대해 전해진 얘기가 있는지요?

**답** 증조부님이 동학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혁명에 가담하였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조부님이나 아버지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저 증조부님이 동학에 들어가서 활동하다 돌아가셨고, 그 일 때문에 가족들이 피난을 다니면서 갖은 고초를 겪었다는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증조부님이 동학농민군이 예천 읍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굴머리 전투 때 전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천 사람들은 굴머리를 서정자들이라고도 부릅니다. 증조부께서 전사한 후, 집에



**문** 네, 선생님. 2004년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설치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증조부께서 참여자로 등록되었지요?

**답** 네, 참여자심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참여자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05년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최종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조부님의 위패가 전북 정읍시 황토현전적에 자리한 구민사(救民祠)에도 모셔져 있고, 2022년 5월 개원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 추모관에도 모셔져 있습니다.

**문** 네, 구민사와 추모관에 증조부님 위패가 모셔져 있지요. 증조부님에 대해 알고 계신 내용 중에 빠뜨린 얘기는 없는지요?



계시던 증조모님이 시아버님이신 고조부님을 모시고 깊은 곳으로 피난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진 고초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경북 예천군 동학농민군 생매장 터 추모비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79)  
동학농민혁명 당시 예천지역 민보군이  
동학농민군 11명을 생매장한 곳



예천 동학농민군 서정자들 전투지(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83, 85, 2, 86. 1 일대)  
동학농민혁명 당시 예천지역의 동학농민군과 민보군이 접전을 벌였던 곳.

**답** 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셔서 활동한 내용이 나 이런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조부님이나 조모님 또는 아버님께 들은 얘기가 그리 많지 않아요. 나중에 이이화 선생님, 신영우 교수님 이런 분들한테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하게 빠뜨린 것은 없어요.

**문** 네, 선생님. 끝으로 증조부께서 굴머리 전투에서 전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증조부님 시신은 거두었나요? 어디에 모셔져 있는지요?

**답** 네, 굴머리 전투가 끝난 후 하룻밤을 지내고 난 뒤에 당시 집안 어른들이 전장에 가서 증조부님 시신을 수습하여 선산에 모셨다고 합니다. 선산은 예천군 유천면 가동 산 105번지 일대예요. 그곳에 저의 7대조, 6대조 그리고 증조부 이렇게 세 어른이 모셔져 있고, 조부님부터는 우리 집 바로 뒷산에 모셔져 있어요.

**문** 네, 선생님. 긴 시간 동안 가슴 아픈 얘기를 가만가만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빠뜨린 얘기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모진 세월이었어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이전에는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 뭐 이런 얘기를 입도 뻥긋 못하고 살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특별법도 제정되고, 국가 기념일도 제정되어 매년 정부에서 기념식도 성대하게 거행하잖아요? 격세지감이예요. 그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헌신적으로 추진해온 기념사업 단체 관계자 여러분은 물론이고, 동학농민혁명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하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애쓰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임원과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 네, 선생님. 긴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황토현에서 발린타왁(Balintawak)의 외침을 듣다

## Listen the Cry of Balintawak in Hwangtohyeon



**Ligaya Globio** was born in the Philippines. She married a Korean and moved to Korea 13 years ago. She is currently working as a multicultural awareness program instructor in kindergartens and elementary schools as well as an English academy teacher in Korea.

리가아 글로비오(Ligaya Globio) 필리핀 출신으로 13년 전 한국인과 결혼하여 이주한 여성이다. 현재 한국에서 영어 강사와 함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번역 오진경 (『녹두꽃』 편집자)

It was an ordinary Sunday afternoon and my family were driving to Jeongeup City for our weekend getaway. We dislike going to crowded places, an aftermath of the pandemic, so we avoided Mt. Naejang. Instead I searched the internet and typed "places to visit in Jeongeup" and found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Park. We have never been there so we decided to go. We arrived and we found it a very good place for walk. The place is expansive, with few people around, beautiful flowers blooming here and there and very quiet and peaceful even with the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al music playing in the memorial park.

Out of curiosity, we roamed inside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useum in the memorial park. The atmosphere inside the museum is surprisingly in contrast with the quiet mood outside. There was a virtual screen showing the names of many historic events swirling over the Pacific Ocean, also numerous photographs and documents were in the museum. Furthermore, there was an exhibition showing various battles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participants who sacrificed their lives and the hardships of their families and descendants. Then I saw this: "What courage and what loyalty do they have to climb the mountain and die there?" These are the words that struck me the most during my visit.

평범한 일요일 오후(2023. 4. 23.) 우리 가족은 여가 생활을 위해 차를 몰고 정읍으로 향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이 붐비는 내장산보다 다른 곳을 가보고 싶어 인터넷에 '정읍에서 가볼만한 곳'을 검색하여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기념공원에 도착하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드넓으면서도 사람이 많지 않고,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어 산책하기 참 좋은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기념공원에는 한국 전통음악이 흘러나왔고 조용하면서도 평화로웠습니다.

기념공원을 걷다가 호기심으로 기념공원 안에 자리한 동학농민혁명박물관으로 들어가 관람하였습니다. 박물관 내부의 분위기는 외부 분위기와 사뭇 달랐습니다. 박물관의 전시실에는 소용돌이치는 태평양 위에 여러 역사적 사건의 명칭들이 보이는 영상과 수많은 사진과 기록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나아가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에 따른 여러 전투 상황, 그리고 희생된 참여자와 유족들의 고난을 보여주는 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안겨준 것은 "죽을 각오로 먼저 산에 올라오니, 그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며 무슨 담력이 있는 것인가?"라는 문구였습니다.

박물관 관람을 통해 이곳(황토현전적)에서 농민들이 농기구와 죽창을 들고 관군과 맞서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는 사실과 이후 전주성을 점령하여 조선 정부와 협약(전주화약)까지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기념공원과 기념관을 돌아보면서 저는 웬지 이 사건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왜일까? 생각하다가 문득 저의 조국 필리핀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필리핀은 300년 넘게 지

Through the tour in the museum, I was awed at the fact that the peasants fought against the government forces with bamboo spears and their farming tools and won a great victory here, and that they occupied Jeonju fortress and signed a peace agreement with the Joseon government. Wait a minute, why these events seem very familiar to me? Aha! It reminded me of a battle in Manila, the Philippines called ‘The Cry of Balintawak’ in 1896 against the more than 300 years of Spanish colonization. The revolt was a failure on their first outbreak but it started the spark for the Philippine Revolution. The Philippines was colonized by Spain for 333 years, and then by the United States for about 50 years. Since the onset of the Cry of Balintawak, Filipinos continued to fight for independence until it gained independence from the United States in 1946, and the struggle is called the ‘Philippine Revolution’.

On a personal note, as an immigrant in Korea, I was emotional when I saw the statue of the Donghak peasants army in the park due to similar history between Korea and the Philippines. I felt like the peasants carrying bamboo spears were walking towards me and beckoning me to join them. I could almost feel them because they were like me, a nobody, yet they dreamt that they could change their world at that time. They dreamt of being able to change the corruption and



속된 스페인 식민통치에 저항해 1896년 ‘발린타왁(Balintawak)의 외침’이라는 필리핀 마닐라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패배하였지만 이후 필리핀 혁명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스페인에게 333년 동안 식민통치를 받았고, 이후 바로 미국에게 약 50년 간 식민통치를 받았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발린타왁(Balintawak)의 외침’ 전투 이후 1946년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독립투쟁을 전개하였는데, 그 투쟁을 ‘필리핀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의 조국 필리핀의 역사와 겹쳐서인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있는 ‘불멸, 바람길’(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 동상)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품 속 죽창을 든 농민들이 함께하자고 저에게 손짓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상 속의 농민들은 저처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인물들이 더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불평등한 당시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꿈꾼 세상은 낡은 봉건제도를 개혁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inequality in their times. The world they dreamed of would have been a world where human rights were respected and where people could live like human beings by reforming the old feudal system.

Donghak peasants army took the revolution without any military training and any plausible weapons, too. Thinking about the values that the Donghak Peasant Army aspired to, I deeply realized that my Filipino ancestors also tried to achieve and fought for the same ideals. I was touched by the fact that my country also has a revolution similar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lthough the ancestors of Korea and the Philippines fought in different times, different places, but the cause was same.

While looking around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Park, I was very happy to have a feeling of connectedness with it as if I were in my homeland, the Philippines. After 13 years in Korea, I was able to see my country in Korea.

To the heroe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efforts.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동학농민군은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고, 그럴듯한 무기조차 없이 혁명에 나섰습니다. 저는 동학농민군이 열망했던 가치를 생각하면서 저의 조국 필리핀 선조들이 투쟁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이 서로 같을 것이라는 점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혁명이 저의 조국 필리핀에도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몽클하였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선조들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싸웠지만 대의는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돌아보면서 저는 마치 조국 필리핀에 와있는 것처럼 유대감을 가질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13년 만에 저는 한국에서 조국 필리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영웅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사단법인 전봉준」을 찾아서

일시 2023. 5. 2.(화)

장소 국회의원회관 김두관 의원실

소식지 『녹두꽃』(통권52호) 지역대담에 사단법인 전봉준, 김두관 이사장을 모셨다. 2021년 4월 사단법인 전봉준에 취임한 김두관 이사장은 경남 남해에서 출생하여 이어리 이장(1988, 남해군 고현면), 제38~39대 남해군수(1995~2002), 대한민국 제5대 행정자치부장관(2003),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2005.5.~2006.1), 열린우리당 최고위원(2006) 등을 역임하였다.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제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 을)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두관 (사)전봉준 이사장

**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통권 52호) <지역대담>에 사단법인 전봉준(서울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김두관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국정 관련 업무 등으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녹두꽃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전봉준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두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지역구는 양산시 을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중고등학교 다닐 무렵부터니까, 대략 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네요. 혁명 100주년 전후 시기고 이이화 선생님과 중국으로 독립운동 관련 역사 세미나를 다니면서 전봉준 사상에 숭고한 뜻을 다시 새겨듣는 중요한 계기를 갖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사단법인 전봉준 이사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처음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고사하였으나, 대학 시절에 졸업논문을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주제로 썼기 때문에 이것도 인연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사장직을 수락했습니다.

**문** 네, 이사장님. 재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사단법인 전봉준 자문위원으로 이사장님께 위촉장을 받았습시다.(웃음)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35개인데,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활동하는 단체가 14개이고, 임의단체로 활동하는 단체가 21개입니다. 이들 단체 중에서 중앙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 인가를 받은 법인은 사단법인 전봉준,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두 개 단체입니다. 중앙부처에 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단체는 지회 혹은 지부를 두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체 설립에 어려움이 많았을 터인데, 사단법인 전봉준 설립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법인을 설립한 배경은 2018년 4월 24일 전봉준 장군 순국일에 맞춰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울지하철 종각역 5~6번 출구 앞에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었지요. 이 동상 건립이 ‘사단법인 전봉준’의 설립 배경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국내외적인 정치적 혼란으로 지난 한 세기 동안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 사건 혹은 반란사건 등으로 왜곡·축소되어 왔잖아요? 이런 속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인 종로에 전봉준 장군 동상이 세워졌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 일부 지역의 사건으로 왜곡되고 축소된 채 역사의 뒤편길에 버려져왔지만, 사실 동학농민혁명은 경상도와 충청도는 물론 경기도, 강원도, 북한지역까지 전국적으로 농민과 몰락한 양반들이 당시 부패한 중앙집권세력과 일제의 국권침탈에 결연히 항거한 범민족적인 반일의병이였습니까? 따라서 늦었지만 유럽의 프랑크혁명처럼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적 동참으로 이어진 혁명정신을 우리 세대에서 바로 잡아



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전국화, 동학농민혁명 위상과 그 의미의 대중화를 위해 서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뜻을 모아 사단법인 전봉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전봉준은 광역지부로 충남지부(태안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충북지부(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남지부(장성동학농민혁명유족회), 경기지부 이렇게 총 4개 지부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권과 강원권에 각각 지부를 설립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나갈 생각입니다.



**문** 단체 설립 이후 매년 4월 24일 전봉준 장군 순국일에 추모제를 거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문부장님 얘기처럼 매년 4월 24일 전봉준 장군 추모제를 거행해왔습니다. 1894년 한 해 동안 조선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정치정세를 격동시켰던 동학농민혁명은 그해 12월 3일(음력 11. 7.)과 12월 4일(음력 11. 8.) 공주 우금티에서 일본군과 관군 연합부대를 맞아 치열한 격전을 치루었으나 일본군의 근대적인 신무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후퇴를 거듭하다가 전라북도 금구·원평 구미란마을에서 재기의 전투를 치루었는데 이 전투에서 다시 패하였고, 그 이튿날 인근 태인현으로 후퇴하여 다시 접전했으나 또 다시 패배하여 동학농민군은 이곳에 주력부대를 해산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봉준 장군은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입암산을 타고 순창 피노리로 몸을 피했으나 동료의 밀고로 관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나주 감옥으로 이송되었다가 서울 남산자락에 자리잡고 있었던 일본영사관 순사청으로 압송되어 지금의 종로거리에 있었던 의금부 권설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4월 24일(음 3. 30.) 순국하셨습니다. 이후 123년이 지난 2018년 4월 순국일에 맞춰서 종각역 5~6번 출구, 영풍문고 빌딩 앞에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이이화 역사학자께서 (사)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이사장을 맡아 대업을 이루셨지요. 이 동상이 건립되기까지 우리 문병학 부장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전에 이이화 선생님께서 사석에서도 얘기하신 적이 있었고, 선생님이 유작으

로 남기신 『동학농민혁명사』(전 3권)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주를 방문하였을 때 문 부장이 서울 종로에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을 아주 감동적으로 제안하여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셨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런저런 힘들어 한데 모여서 동상을 건립할 수 있었지요. 더군다나 어느 한 사람 한 단체의 기금이 아닌 범국민 모금으로 건립되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분명 전봉준 장군께서도 “참으로 잘 했다”라고 하실 겁니다. 그것이 전봉준 사상이라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 사단법인 전봉준은 범인사와 동시에 공동대표직을 수행하는 전성준 교수(국민대)는 전봉준 장군의 양증손이고, 사단법인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해마다 전라북도 정읍소재 전봉준 장군 단소에서 추모제를 지내고, 같은 날 저희 단체도 서울 종로구 소재 전봉준 장군 동상 앞에서 동시에 추모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및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회원들이 연로하신 대 선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생각과 요구를 경청하여 깊이 새겨서 갑오선열께서 피와 목숨으로 지키려했던 동학농민혁명 사상은 후대에 길이 계승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 사단법인 전봉준에서는 소통과 화합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폭넓은 행보를 하기 위해 회원들의 연령대를 과감하게 낮추어 현재 30대와 40대 회원을 영입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 맞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종로 네거리에 역사 인물 세 분이 있습니다. 광화문 바로 앞에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고, 그 앞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서 있습니다. 말하자면 관의 대표 세종대왕, 군의 대표 이순신 장군 이렇게 서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비로소 2018년에 민의 대표 녹두장군 전봉준 동

상이 건립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상을 건립한 후 자연스럽게 (사)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의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 전봉준’이 창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립 이후 전봉준 장군 추모제 등을 거행해오면서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서울·경기지역에 ‘전봉준 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1895년 음력으로 3월 30일, 양력으로 4월 24일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이 장군께서 순국하신 조선시대 때 전옥서 터에 2018년 4월 24일 동상건립 제막식 때 참석하셨던 어떤 어른 한 분이 “전봉준 장군이 드디어 서울에 입성하셨다”라고 감격하시더라고요. 이후 설립된 우리 사단법인 전봉준은 매년 지속적으로 그 동상에서 추모제를 거행해왔습니다.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생각입니다. 아직은 구상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수도권에 ‘전봉준 공원’ 혹은 ‘동학농민혁명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전북 정읍 황토현 일대에 조성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적 위상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세계사적 의미를 확산시켜나가는 것에는 일정하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중심국가인 대한민국 수도권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물을 건립하여 그 정신 계승·발전에 기여해나갈 계획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장소에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잘 담아낸 ‘전봉준 공원’이나 ‘동학농민혁명박물관’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범국민적인 관심과 성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범국민적인 관심과 성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우리 단체에서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나갈 생각입니다.

**문** 서울·경기지역에 ‘전봉준 공원’(가칭)과 ‘동학농민혁명박물관’(가칭)이 조성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민족 내부의 극심한 좌우 대립,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세계사적 차원에서 구축된 동서냉전체제, 이후

세계사를 뚫고 얼어붙게 만든 냉전의 구도 속에서 전라도 사건 혹은 반란 사건 등으로 치부된 채 2세기 한 세기 동안 역사의 뒀안길에 버려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점으로 동학농민혁명의 한국사적 의미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세계사적 의미와 그 위상이 복원되었습니다. 그 결실로 2004년 특별법, 2019년 국가 기념일이 제정되었지만,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급변한 현대 상황에 맞게 현재화하는 것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수도권에 ‘전봉준 공원’ 혹은 ‘동학농민혁명박물관’이 조성된다면 더없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성사되기를 간곡하게 기원하겠습니다.

**답** 맞습니다. 특별법과 국가 기념일까지 제정되었으나 아직도 동학농민군의 헌신적인 투쟁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정통성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시작으로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포럼이나 심포지움 개최 등



을 통해 세계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알리고, 동학농민군과 전봉준 장군의 의로운 항쟁을 대하 드라마나 뮤지컬 등 격조 높은 문화예술작품으로 제작하는 데 힘써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국권을 침탈한 일본군과 맞서 싸운 동학농민군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나가겠습니다.

**문**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웃음) 저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사단법인 전봉준 이사장으로 추대할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이 동아대학교 학부인가, 대학원 때였던가? 졸업논문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주제였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답** 맞아요.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경상도 섬인 남해에서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남해종합고등학교를 나와 서울소재 국민대학교에 합격했으나 등록금 문제로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생활고가 조금 나아졌을 무렵 부산 소재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당시 학사 졸업으로 논문을 쓰는데 전봉준 장군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동학농민혁명이 한국 근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작성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동학농민혁명을 일종에 ‘난’이라고 해서 꺼리는 경향이 높았는데, 교수님이 ‘동학난’을 ‘동학혁명’으로 바꿔놓은 것을 칭찬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이후 전봉준 장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고향인 사골 남해군으로 내려가서 어린 나이에 이장을 하면서 남해군민의 계몽활동과 군민들 소식지로서 『남해신문』을 만들었습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해군수’로 당선되어 36세 최연소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었고 이어 제2회 지방선거에도 당선되었습니다. 많은 선거 출마로 당선과 낙선을 통해 이후 정치행보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문** 끝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분들이나 전국 각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지금까지 ‘동학난’을 일으킨 자손으로 몰려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름조차 바뀌가며 살아오신 유족분들과 과거 정부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 남들에게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살아오신 참여자 유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진심을 다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국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애국자 자손들입니다. 각 지역마다 동학농민관련 단체가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원분들이 대체로 연로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역사를 지키고 인식하지 않으면 왜곡된 역사가 어느새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 생각되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영입하셔서 보다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가 경상남도 양산시입니다. 사단법인 전봉준 경남지부를 창립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는 데 모범을 보여드리도록 힘쓰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에 귀한 지면을 마련해주시고, 이렇게 직접 국회까지 내방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문** 이사장님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2023년 정기 대의원 총회



지난 4월 14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회의실에서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2023년 정기 대의원 총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성원보고에 이어 주영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본 회의는 2022년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업 및 예산결산,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정관 개정안 심의, 차기 임원 선임 및 대의원 선임의 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윤준병 국회의원)이 보고안건으로 상정되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 순국 제128주기 전봉준 장군 추모제



신순철 동학농민기념재단 이사장



지난 4월 24일 서울 종로구 전봉준장군 동상 앞(서울 종로구 서린동 26. 1, 옛 전옥서(典獄署))에서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전해철)의 주최로 제128주년 전봉준 장군 추모식이 개최되었다. 개회사, 국민의례, 전봉준 장군 행적 소개, 추념사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명수 국회의원, 신순철 동학농민기념재단 이사장, 주영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전석홍 전 보훈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하여 서울시민 100여 명이 참석하여 전봉준 장군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 서울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출범



지난 4월 23일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서울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대회가 열렸다. '서울, 다시 동학을 이야기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행사에서 채길순 명지대학교 명예교수가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되었다. 채길순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활성화와 함께 서울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보존 및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여 갑오선열의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데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김개남 장군 순국 129주기 추모제



지난 4월 8일 전북 정읍시 산외면 김개남 장군 묘역에서 김개남장군기념사업회(회장 김호영)의 주최로 김개남 장군 순국 129주기 추모제가 거행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김개남 장군을 기리는 이번 추모제는 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회사, 추모사, 고천문 낭독, 재배·분향·헌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추모제에는 염영선 전라북도의 회 의원, 김봉승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김형우 정읍시 부시장, 김승범 정읍시의회 의원, 안경엽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등을 비롯해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제129주년 무장기포 기념제



지난 4월 25일 고창군 공음면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국가지정문화재) 일원에서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제가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진윤식) 주관으로 펼쳐졌다. 국민의례, 대회사, 축사, 기념공연, 제16회 녹두대상 시상, 동학농민군 진격로 걷기, 무장음성 입성재연으로 전개된 기념제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김만기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주영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및 고창군민 1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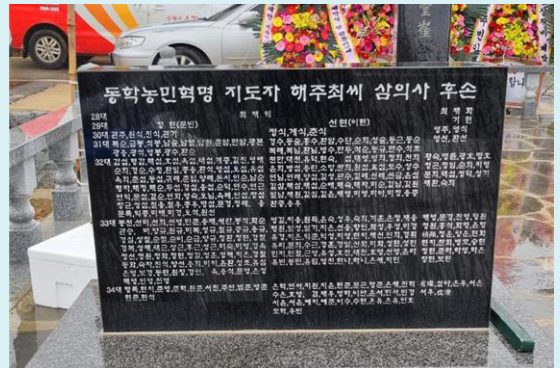
한편 제16회 녹두대상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 등에 헌신하여 갑오선열의 숭고한 정신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남기(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상임고문이 수상하였다.

## 제129주년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식



지난 4월 26일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전남 장흥읍 충열리)에서 제129주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식이 열렸다.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이방언 장군 순국일에 열린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기념사(위의한 장흥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 축사(이영권 전 국회의원)에 이어 석대들 전투에서 희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무명 동학농민군에 대한 헌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의 기념사업단체 관계자를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무안 삼의사 실적비 제막식 및 위령제



지난 4월 29일 전남 무안군 해지면 석용리 석산마을에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 고막포 전투에 참여했다가 순국한 무안군 출신 해주최씨 삼의사(최장현, 최선현, 최기현)의 실적비 제막식과 함께 위령제가 거행되었다. 무안군동학농민유족회,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해주최씨 삼의사 숭모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성훈 무안군 부군수, 박석면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최효섭 해주최씨 삼의사 숭모회 회장(최선현의 증손)을 비롯하여 해주최씨 삼의사 후손과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제129주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기념행사



지난 5월 1일 전북 부안군 백산면에 위치한 백산성 일원에서 제129주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기념행사가 열렸다. 부안군이 주최하고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백산봉기 기념탑에 헌화를 시작으로 가두행진, 기념식, 식후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배의명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을 비롯하여 부안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동학농민혁명 제129주년 기념식 및 강연회



지난 5월 10일 전라남도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과 함께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준비를 위한 역사특강이 열렸다.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은 개회식, 국민의례, 추모사, 기념사, 기념시 낭송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해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어떻게 무안에 바로 세울 것인가?'라는 주제 강연이 진행되었다.

## 제129주년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식



지난 5월 11일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광장에서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열렸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은 이날 행사는 길놀이, 축하공연, 기념사, 축사, 문화행사 등으로 성대하게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가세로 태안군수, 신경철 태안군의회위원장, 장명진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회장, 윤여준 충남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중남 태안문화원장, 문영식 동학농민혁명태안군유족회장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및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하였다.

## 제129주년 공주 동학농민혁명기념식



(사진출처 : 공주시)

지난 5월 11일 충남 공주시 우금티전적지에서 공주시 주최,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이 열렸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길놀이, 추모 시 낭송, 동학농민혁명의 노래 제창, 헌화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 제56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이학수 정읍시장

지난 5월 11일에 제56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피어나는 녹두꽃, 자라나는 평화'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곳곳에서 펼쳐졌다. 정읍시 주최,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인 5월 11일을 의미하는 511명의 정읍시 지역 농약단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동학, 그날의 함성'을 시작으로 전국댄스경연대회, 전국소년소녀합창대회, 청소년 사생대회 및 백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제13회 '동학농민혁명 대상'을 수상한 (사)동학농민전쟁유금티기념사업회(이사장 정선원)와 '동학농민혁명 UCC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 무명동학농민군 위령제



지난 5월 13일 전북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에 위치한 무명농민군위령탑 앞에서 이름 없이 스러져 간 농민군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가 열렸다. 길놀이, 기념사, 축사, 고유문 낭독, 제례, 살풀이 순으로 진행된 이날 제례에는 이학수 정읍시장, 하연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의장, 김봉승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장, 이희청 (사)동학농민혁명고부분기념사업회 이사장, 심재식 동학농민혁명정읍시유족회 회장, 유성엽 전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정읍시민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 제129주년 장성 황룡 동학농민군 승전 기념식



신순철 동학농민기념재단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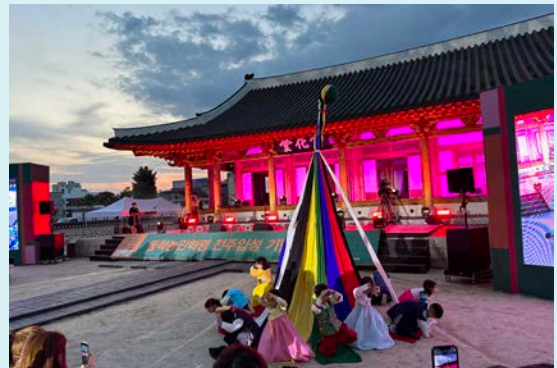


지난 5월 26일 장성 황룡 동학농민군 승전기념공원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에서 전라남도(장성군) 주최,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제129주년 장성 황룡 동학농민군 승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은 식전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폐정개혁 12개 낭독, 기념사, 축사에 이어 식후 문화공연으로 시 낭독과 창극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한중 장성군수, 고재진 장성군의회 의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위희환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과 회원 30여 명,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 전주입성 기념대회



우범기 전주시장



지난 5월 31일 옛 전라감영 내 선화당 앞마당에서 전주시와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최·주관으로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 전주입성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은 기념사(우범기 전주시장), 환영사(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축사(이종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주영채(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역사특강(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기념공연(어린이 합창단)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 전주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갑오선열의 정신을 기렸다. 한편 기념식이 열린 전라감영(선화당)은 1894년 5월 8일(음력) 전주화약을 맺고 민관협치를 통해 근대적인 폐정개혁을 단행한 곳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효시로 평가되고 있다.

# 녹두꽃, 다시 피다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기념공원 생태탐방 '녹두모험단', 미션을 해결하는 역사탐방 '1894년, 녹두꽃의 기억', 박물관 온라인교육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박물관 스스로 학습 '1894! 가보세 갑오세', 기념관 프로그램 '창수야, 놀자!,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찾아라'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념공원, 1894 녹두꽃의 기억  
정읍 영원초등학교 (2023.4.25.)



기념공원, 1894 녹두꽃의 기억  
정읍 수성초등학교 (2023.4.25.)



기념공원, 1894 녹두꽃의 기억  
정읍 이평중학교 (2023.5.3.)



기념공원, 1894 녹두꽃의 기억  
정읍, 전북동화중 (2023.5.9.)

기념공원, 1894 녹두꽃의 기억  
춘천 가정중학교 (2023.5.9.)



기념공원, 1894 녹두꽃의 기억  
정읍, 보성초등학교 (2023.5.23.)

기념공원, 녹두모험단  
정읍 크레용 유치원 (2023.4.24.)



기념공원, 녹두모험단  
정읍초등학교 (2023.5.3.)

기념공원, 녹두모험단  
정읍 수성초등학교 (2023.5.4.)



기념공원, 녹두모험단  
정읍 이평초등학교 (2023.5.18.)

기념공원, 녹두모험단  
정읍 신광어린이집 (2023.5.19.)



기념공원, 녹두모험단  
전주 상원리나유치원 (2023.5.26.)

기념공원, 녹두모험단  
정읍 상평어린이집 (2023.5.30.)



기념공원, 녹두모험단  
정읍 신태인초등학교 (2023.5.31.)

**박물관**  
김제 중정초등학교(2023.4.6.)



**박물관**  
정읍 영원초등학교(2023.4.6.)

**박물관**  
정읍 정남초등학교(2023.4.7.)



**박물관**  
광주 꿈역사도서관 (2023.4.16.)

**박물관**  
정읍 한솔초등학교(2023.4.18.)



**박물관**  
완주 고산초등학교 (2023.4.25.)

**박물관**

정읍 수성초등학교(2023.4.25.)



**박물관**

정읍 이평중학교 (2023.4.25.)

**박물관**

용인 소명고등학교(2023.4.25.)



**박물관**

정읍 수성초등학교 (2023.4.27.)

**박물관, 1894! 가보세 갑오세**

정읍 정남초등학교 (2023.5.3.)



**박물관, 1894! 가보세 갑오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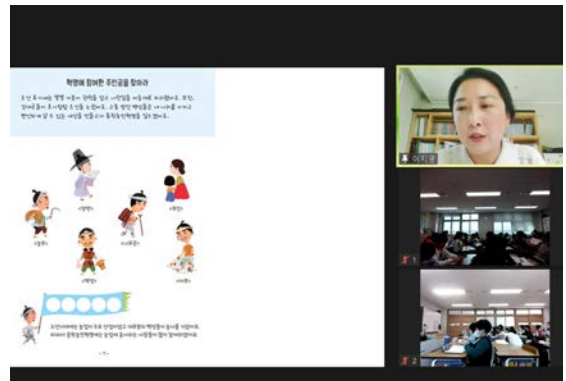
이리 남중학교 (2023.5.10.)

**박물관, 1894! 가보세 갑오세**  
김해 역사탐사 (2023.5.10.)



**박물관, 1894! 가보세 갑오세**  
익산 원광여자고등학교 (2023.5.10.)

**박물관,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온라인)**  
경기 서연초등학교 (2023.3.27)



**박물관,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온라인)**  
세종 다정초등학교 (2023.4.17)

**기념관, 창수야, 놀자!**  
정읍 영원초등학교 (2023.4.6.)



**기념관, 창수야, 놀자!**  
정읍, 한솔초등학교 (2023.4.18.)

**기념관, 창수야, 놀자!**  
정읍초등학교 (2023.4.27.)



**기념관, 창수야, 놀자!**  
정읍, 전북동화중학교 (2023.4.27.)

**기념관,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찾아라**  
정읍 동신초등학교 (2023.5.2.)



**기념관,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찾아라**  
정읍초등학교 (2023.5.2.)

**기념관,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찾아라**  
익산 원광여자고등학교 (2023.5.4.)



**기념관,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찾아라**  
태인중학교 (2023.5.4.)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2023.4.7)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23.4.19.)

일본 도쿄노동자학습회의 (2023.5.19.)



광주광역시 민주혁명 기념사업회 (2023.5.23.)

# 2023년 교육·체험 프로그램

## 박물관 / 기념공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장소	일정
상설	1894! 가보세 갑오세	(전국)모든 대상	박물관	1~12월
온라인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전국)초등 4~6학년	온라인 (ZOOM)	3~11월
관내	녹두모험단	유아 만4세 이상/ 단체	교육관, 기념공원, 전시관	4~11월
	녹두탐험단	초등 1~3학년/ 단체		
	1894년, 녹두꽃의 기억	초등 4학년~ 고등/ 단체		

## 기념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장소	일정
관외	찾아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국)초·중·고	해당 학교	3~12월
관내	창수야, 놀자!	만5세 이상 ~ 초등 3학년	기념관, 기념공원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찾아라	초등 4학년 ~ 고등		
답사	1894 시간여행	(전북)중·고생		9~11월
	녹두 꾸러기 탐험대	(전북)초등 5·6학년		
교원 직무연수	동학농민혁명 바로보기	(전국)초·중등 교원	기념관, 전북 유적지	7~8월
생생	녹두장군과 함께하는 1박2일	일반인		6~9월
	파랑새를 찾아서	다문화 가정		9월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녹두장군 이야기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		7월
	꿈을 품은 박물관	(전국)중등	10월	

※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1894.or.kr>)를 참고하세요. 문의: 063. 530. 9400



보도일	언론사	기사 제목
2023. 04. 15	뉴시스	정읍교육지원청, 동학농민혁명 기념 '역사골든벨'
2023. 04. 17	뉴스1	'전봉준 공초' 등 동학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확정적
2023. 04. 17	경북신문	100년 전 생명사상의 스승이자 동학 이끈 '해월 최시형 평전'
2023. 04. 17	아시아경제	정읍시, 21일 고부관아 복원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23. 04. 17	뉴시스	고창군, 무장기포지 조사… 동학농민군 우물터 등 발굴
2023. 04. 23	전라일보	정읍 고부관아 복원 전문가 토론회 고건 청취
2023. 04. 23	한겨레	정읍시의회,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 촉구
2023. 04. 23	광주일보	일본 시민들의 '뜻 깊은 사회'… 나주에 동학혁명 사죄비
2023. 04. 24	데일리한국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제129주년 고창무장기포기념제' 열려
2023. 04. 24	경인뉴스	사단법인 전봉준, 전 장군 순국행사 개최
2023. 04. 25	브레이크뉴스	서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채길순 초대 위원장 선출
2023. 04. 26	브레이크뉴스	백산고,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기념행사 개최
2023. 04. 26	프레시안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제129주년 고창무장기포기념제' 개최
2023. 05. 08	한겨레	동학농민혁명 대상에 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
2023. 05. 08	연합뉴스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정읍에서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2023. 05. 09	KBS	동학농민혁명 129돌… '혁명 정신' 계승하려면
2023. 05. 10	전북일보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위상 강화
2023. 05. 10	kb광주방송	1894년 그날,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하다
2023. 05. 11	한국일보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개최… 세계기록유산 등재 눈 앞
2023. 05. 11	한국일보	신순철 동학재단 이사장 "'항일, 부패 청산' 130년 전 동학 구호는 여전히 유효"
2023. 05. 11	YTN	동학혁명 가치 전 세계로… 세계 혁명도시 연대회의
2023. 05. 11	연합뉴스	'피어나는 녹두꽃, 자라나는 평화'…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개최
2023. 05. 11	뉴시스	공주시, 제129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2023. 05. 12	광주드림	무안군 129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2023. 05. 12	서울신문	항일투쟁 농민들 '독립유공자' 인정받나
2023. 05. 14	광주일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후손 명예회복 시켜야
2023. 05. 14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 필요
2023. 05. 15	중도일보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위상 강화' 총력
2023. 05. 16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은 현재도 진행 중
2023. 05. 19	JTV	세계 유산된 동학농민기록물… 남은과제는?
2023. 05. 19	파이낸셜뉴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한국 총 18건
2023. 05. 19	KBS	동학농민혁명기록 유네스코 등재… '세계 속 녹두꽃 피다'
2023. 05. 20	서울신문	동학농민혁명의 흔적을 찾아… '혁명의 발상지' 전북 정읍
2023. 05. 22	쿠키뉴스	정읍시 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건의문 채택
2023. 05. 23	SBS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그 의미와 남은 과제는 ?
2023. 05. 23	KBS	'혁명의 역사'… 세계기록유산되다
2023. 05. 23	오마이뉴스	전봉준 심문기록이 세계적 주목을 받은 이유
2023. 05. 24	뉴스1	김성주의원 "제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독립유공자 인정하라"
2023. 05. 24	무등일보	무안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들어선다
2023. 05. 24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을 세워야 전북의 미래가 있다
2023. 05. 24	새전북신문	고창군, 공무원대상 '동학농민혁명 특강'
2023. 05. 25	kb광주방송	동학농민혁명정신 담은 K. 창극 '조선의눈동자' 무대 올라
2023. 05. 28	한겨레	일제가 철거한 동학농민혁명유적 '고부관아' 복원한다
2023. 05. 29	서울신문	세계사적 위상 갖춘 동학농민혁명, 독립 유공자로 서훈해야
2023. 05. 30	한국일보	31일은 동학농민혁명 전주 입성일… 전주서 포럼기념식 개최
2023. 05. 30	전북도민일보	전주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다채롭게 열린다.
2023. 05. 30	광주일보	동학농민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기 위하여
2023. 05. 31	한겨레	'동학농민군 전주 입성' 기린다… 격전지 담은 작품도 선보여
2023. 05. 31	스포츠서울	장성군 '장성동학농민혁명군 승전 기념식' 개최



## 동학농민혁명 홍보도서 『희망 1894』, 『기억 1894』 발행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010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재단 소식지『녹두꽃』를 연 4회 계간(季刊)으로 발행해왔다. 다가오는 2024년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해 그동안의 기념사업 성과를 정리하고자 그간 발행한 소식지『녹두꽃』(통권 51호) 중 「녹두칼럼」, 「명사대담」, 「유족인터뷰」, 「지역대담」 원고를 모아 동학농민혁명 홍보도서(3권)를 발행한다. 우선 상반기에 창간호부터 게재한 「녹두칼럼」과 2016년 봄호부터 2019년 봄호까지 각계각층의 명사를 모시고 진행한 「명사대담」을 엮은 제1권『희망 1894』과 2016년 봄호부터 2023년 봄호까지 참여자 유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족인터뷰」를 한데 묶어 제2권『기억 1894』을 발행하였다. 2016년 봄호부터 전국의 기념사업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와 진행한 인터뷰 「지역대담」을 묶은 제3권 『다시 1894』는 하반기에 발행할 예정이다.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신청 안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등록신청 대상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외손 포함)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부터 봉건체제 개혁 및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봉기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 등록신청 서류 및 제출방법

### 가.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참여자와 신청인의 유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신청인의 선조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 나. 제출 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 온라인 및 FAX 접수는 받지 않음

##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063-530-9434 ~ 5
  - 위원회 홈페이지([www.cdpr.go.kr](http://www.cdpr.go.kr)) 또는 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http://www.1894.or.kr))
-



동록개의 꿈,  
형평을 찾아서

衡平

2023. 5. 11 Thu. 11. 21 Tue.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